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jhlee8604@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글로벌 벙커유 평균 가격, 지난해 동월 대비 30% 이상 하락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APMT, 로테르담항 터미널 확장 공사 계약 체결...유럽 점유율 확대 추진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Kuehne+Nagel, 독일-미 화물 전세기 신규 취항

● 미주 물류시장 심층분석

- 'Made in China' 리스크에 대응하는 미주 공급체인 변화

● 공지사항

- 2023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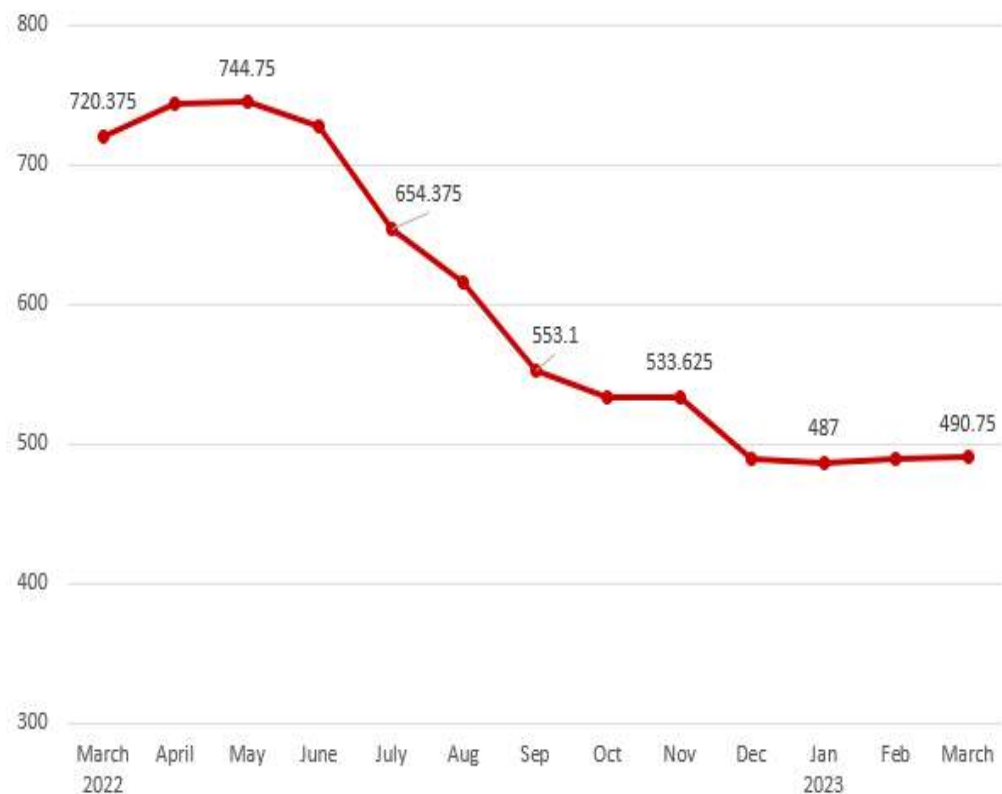


글로벌 벙커유 평균 가격, 지난해 동월 대비 30% 이상 하락

- ▶ 2023년 3월 기준 글로벌 벙커유¹⁾ 평균 가격이 지난해 동월 대비 30% 이상 하락함
 - 2023년 3월 기준 벙커유 톤당 평균 가격은 490.75달러로 지난해 동월 720.38달러 대비 약 31.9% 하락함
 - 벙커유 가격의 안정세는 크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연 수요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됨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친환경 해운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도입에 따라 해운사들의 친환경 연료 전환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음

글로벌 벙커유 평균 가격(2022년 3월-2023년 3월)

(단위 : 달러(\$)/MT(Metric Ton))



자료 : www.gscintell.com(검색일 : 202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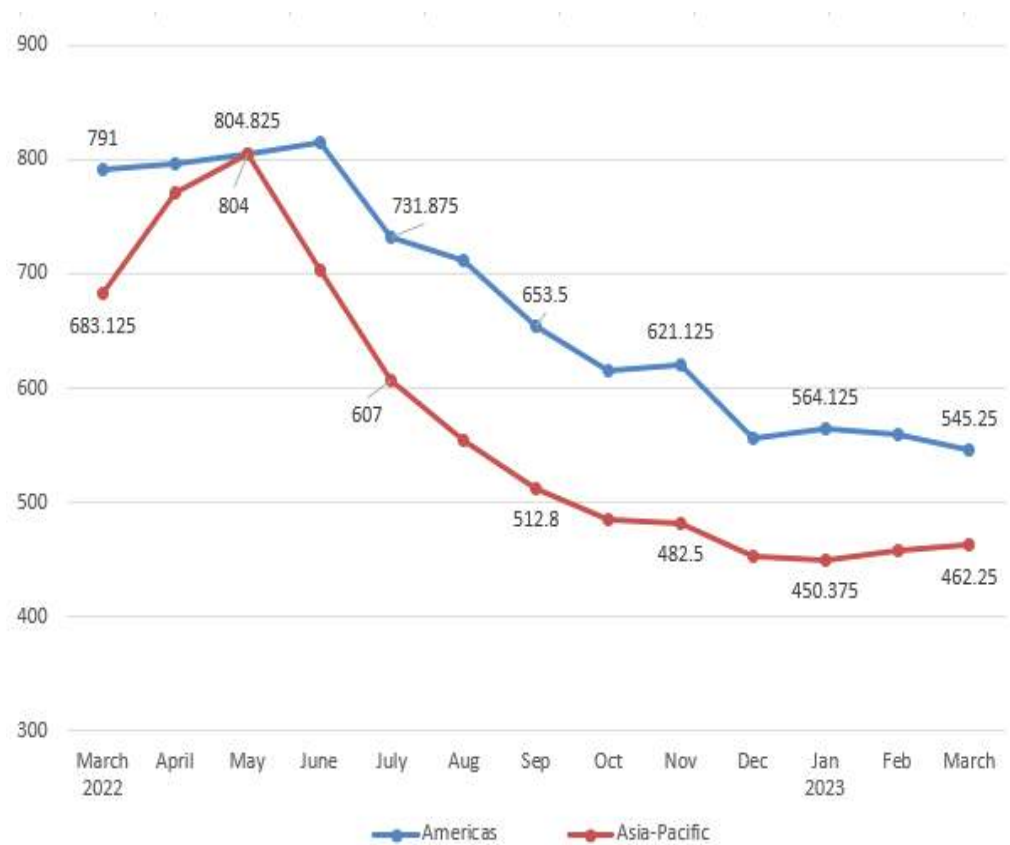
1) 일반적으로 벙커유로 불리는 C중유는 선박의 추진기관과 발전기용으로 사용됨

● 월별 벙커유 평균 가격을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미주 지역보다 가격 변동폭이 더 높게 나타남

- 미주 지역의 경우 2023년 3월 벙커유 평균 가격이 525.25달러로 지난해 고점 6월 815.6달러 대비 약 35.6% 하락함
-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23년 1월 450.375달러로 지난해 고점 5월 804달러 대비 약 44% 하락함

주요 지역별 벙커유 평균 가격(2022년 3월-2023년 3월)

(단위 : 달러(\$)/MT(Metric Ton))



자료 : www.gscintell.com(검색일 : 2023.4.4.)

참고자료 : www.gscintell.com(검색일 : 2023.4.4.)

APMT, 로테르담항 터미널 확장 공사 계약 체결...유럽 점유율 확대 추진

- ▶ APM Terminals(APMT)가 로테르담항 '컨' 터미널 확장을 위해 로테르담 항만공사(Port of Rotterdam)와 약 11억 유로에 달하는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함
 - APMT는 Maasvlakte II 구역의 '컨' 터미널 확장을 위해 로테르담 항만공사와 10억 8천 유로에 달하는 공사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건설 공사는 2024년 하반기 완료될 예정임
 - APMT는 현재 Maasvlakte II 내 '컨'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기존 터미널을 확장하고 하역능력을 개선해 대형 '컨' 선대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임
 -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현재 터미널 확장 공사를 위한 안벽을 건설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공될 경우 APMT가 보유한 터미널 면적은 약 40만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 APMT는 로테르담항 내 가장 큰 규모의 '컨'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를 통해 터미널 면적뿐만 아니라 하역능력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APMT는 2021년 기준 약 270만 TEU를 처리했으며, 이는 로테르담항 전체 '컨' 물동량의 약 18%에 달하는 실적으로 Maasvlakte II 내 5개 터미널 운영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함
 - 하지만 기존 APMT의 터미널 하역능력은 약 220만 TEU로 현재 터미널 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며,
 - 이에 동 프로젝트를 통해 야드 면적의 확장뿐만 아니라 터미널 하역능력 또한 기존 대비 200만 TEU 증가해 약 420만 TEU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로테르담항 APMT '컨' 터미널 확장 공사 현장



자료 : www.offshore-energy.biz(검색일 : 2023.4.4.)

- 머스크 그룹은 APMT의 터미널 확장 공사와 함께 신규 항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터미널 인접 지역에 신규 냉장·냉동창고 및 Depot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머스크 그룹은 APMT의 '컨' 터미널을 확장해 하역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항만의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터미널 인접 지역에 냉장·냉동창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야드 내 '컨'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터미널 인근 지역 내 공 '컨' 처리를 위한 신규 Depot 운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 유럽 물류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임
- 로테르담 항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APMT는 동 확장 공사를 통해 2026년 하반기 경 본격적으로 신규 터미널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며, 로테르담항의 '컨' 물동량 증가뿐만 아니라 유럽시장 내 점유율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함

Kuehne+Nagel, 독일-미 화물 전세기 신규 취항

- Kuehne+Nagel이 독일에서 미국 동부로 화물 전세기를 취항시킴
 - 지난 4월 2일 Kuehne+Nagel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출발해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엄으로 향하는 화물 전세기를 취항시켰음
- Kuehne+Nagel은 미 남동부로의 서비스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음
 - 이번 취항은 Kuehne+Nagel과 Birmingham Airport Authority(BAA)가 2023년 2월 미국 남동부 지역의 항공 화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발표에 이은 것임
 - 해당 파트너십에 대해 BAA의 Darlene Wilson 의장은 “선도적인 물류 회사 중 한 회사와 협력해 항공 화물 사업 확장이라는 장기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힘
 - Kuehne+Nagel의 항공 물류 부문 수석 부사장인 Greg Martin씨는 “Kuehne+Nagel의 비전은 버밍엄을 미국 남동부를 오가는 장기적인 관문으로 만드는 것이며 고객의 공급망 니즈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함

Kuehne+Nagel 독일-미동부 노선의 첫 화물기



자료 : <https://newsroom.kuehne-nagel.com>(검색일 : 2023.4.4.)

➤ 버밍엄-서틀스워스 국제공항에서 취항 기념행사가 진행됐음

-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미국 버밍엄까지의 첫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 버밍엄-서틀스워스 국제공항 및 Kuehne+Nagel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에서 공식 행사가 열렸음
- 버밍엄-서틀스워스 국제공항은 앨라배마주에서 가장 큰 상업 공항으로 90년 이상 운영했음
- 이번 버밍엄-서틀스워스 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보잉 747-8 화물기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미국 동부로 향하는 최초의 화물 전세기로 기록됨

Kuehne+Nagel 미국 남동부 지역 Juergen Gentzke 부사장 연설



자료 : <https://newsroom.kuehne-nagel.com>(검색일 : 2023.4.4.)

➤ 보잉 747-8은 대형 화물 운반이 가능해 자동차 및 항공 등의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임

- 보잉 747-8 화물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이전 모델보다 16% 커 더 많은 화물을 운반할 수 있으며, 항공기 앞부분을 통해 대형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음
- 해당 항공편은 자동차 및 항공, 제약 산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Kuehne+Nagel 미국 남동부 지역 Juergen Gentzke 부사장 연설



자료 : <https://newsroom.kuehne-nagel.com>(검색일 : 2023.4.4.)

참고자료 : <https://newsroom.kuehne-nagel.com>(검색일 : 2023.4.4.)

‘Made in China’ 리스크에 대응하는 미주 공급체인 변화

-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난 몇 년간 미국 및 여러 국가들의 우려였으나,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 인건비 등 제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COVID-19, 중국 정부의 융통성 없이 꽉 막힌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인해, 큰 리스크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많은 기업들이 중국 및 관련 공급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그들의 공급망을 재검토 및 재설계하는 상황이 됨

 -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상황이라는 하나,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은, 의류에서부터 산업용 기계에 이르기까지 품목과 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이었음
 - 그동안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초래된 리스크가 계속 증가되어 오다가 COVID-19를 계기로 비등점에 이르렀으며, 그 영향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기반의 공급망은 중국으로부터의 대탈출이라기 보다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속적인 다변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본 미주 물류시장 심층분석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초래하는 리스크, 이에 대응하는 공급망 변화 대안, 공급망 리스크 극복 방안에 대한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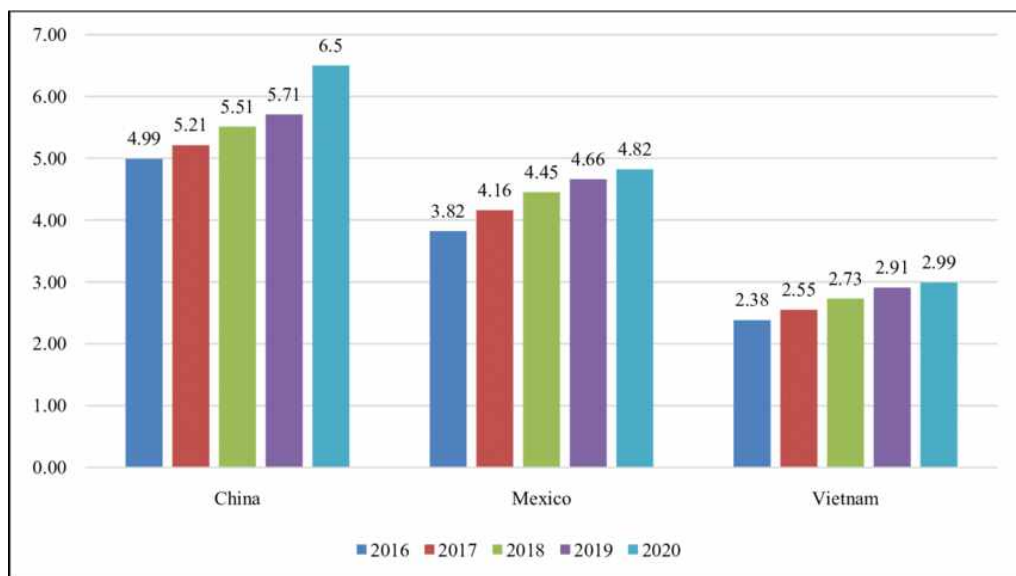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초래하는 리스크

- 미-중 간 무역 갈등, 관세, 지적 재산권 문제

 - 미국으로의 수입 상품 총비용의 25% 수준에 이르는, 여러 제품에 대한 관세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철폐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 미-중 간 무역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과 기술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역추적되고 도난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기술 발달이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더욱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인건비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제 비용

 - 중국의 생산자 인건비는 2014년에 멕시코를 추월하기 시작해, 2020년 시급이 멕시코의 4.82달러, 베트남의 2.99달러에 대비 6.5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반적인 생산요소 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
 - 특히 중국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인건비 격차는 2016년의 2.61달러에서 2020년에는 3.51달러로 더 크게 벌어짐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인건비 변화 추이 (USD/hr)



자료 : China-USA Business Review "Who Benefits From the Challenges of the Chinese Economy", (2021.5.1.)

● 강제노동 및 환경 관련 이슈

- 중국 신장지구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을 문제 삼아 중국으로부터의 면, 토마토의 수입을 금지한 적이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조사 및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석탄 연료 사용 등 미국에서는 환경문제로 금지된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미국으로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비용을 고려하면, 미국 생산 대비 25-5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 리드타임 및 운송능력 관련 문제

- 미국 혹은 중남미 생산에 대비해 운송 시간을 포함한 총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지며, 중국 항만, 미국 서안 항만의 체선 및 체화 현상, 해상 및 항공운송 처리능력 부족 및 운임의 급격한 상승 등의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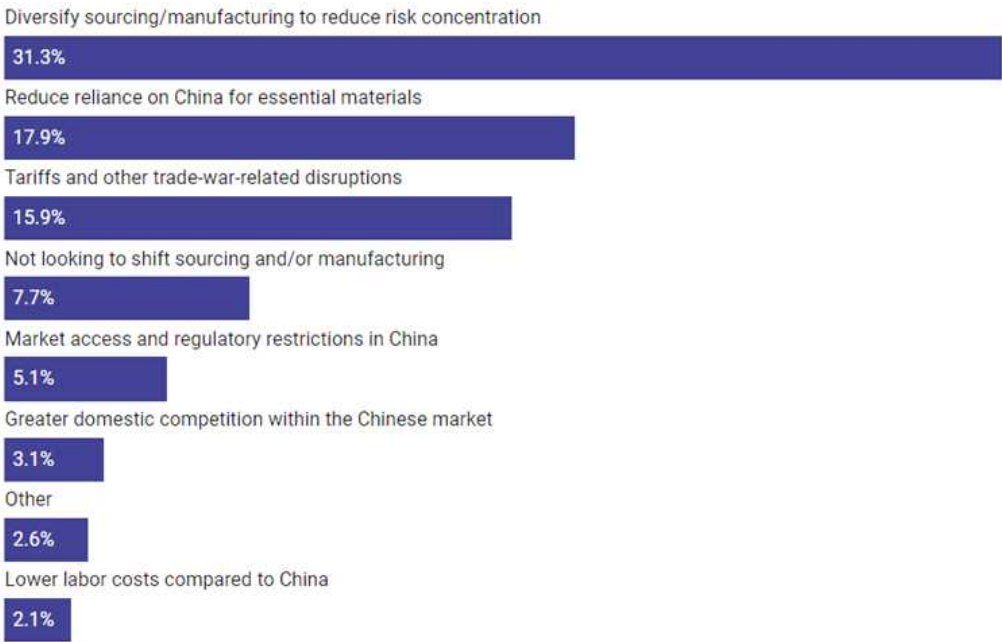
● COVID-19와 같은 대 유행병 관련 리스크

- 이는 세계적인 대 유행병이므로 중국에만 국한된 리스크는 아니나,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와 같은 극단적인 대응 방안이 향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글로벌 위기 상황 발생 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응 및 협력의 장애요인이 될 위험성이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이 그들의 생산 지역 및 공급원을 이동하려는 이유 중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가 가장 큼

- 기본적으로 조달 및 생산의 집중으로 인한 리스크 축소(31.3%)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나, 이는 중국으로의 집중으로 인한 리스크와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음
- 필수 자재 및 원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 무역 갈등으로 인한 단절, 중국 시장 접근 제약 및 규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이 생산지 및 공급원 이동의 주요 원인이며, 생산지 및 공급원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7.7% 수준으로 조사됨

기업들이 생산지 및 공급원을 이동하려는 주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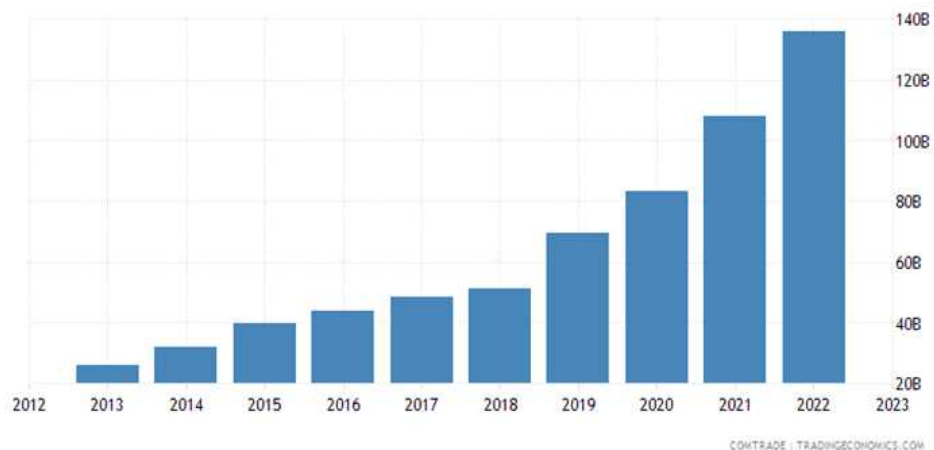


자료 : SUPPLYCHAINDIVE “Supply chains do the math on reshoring’s pros and cons”, (2021.4.8.)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대안

- ▶ 글로벌 공급망의 강력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특히 핵심 원자재 및 제품에 대한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임
 - 따라서 특정한 지역적 범위 및 공급망 구조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함
- ▶ 중국의 대안으로서 우선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은 동남아지역이며, 특히 베트남이 가장 대표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
 - 베트남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 유치 노력 및 정책, 양호한 수준의 정치적 안정성 및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강점을 기반으로, 의류 봉제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뿐 아니라 전자, 자동차 등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양호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베트남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입도 2013년의 244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1,359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함
 - 이러한 베트남의 성장에는 구매 및 수입업체의 공급원 다변화 노력과 아울러, 베트남의 공급업체들이 구매업체들의 조달, 생산, 품질관리, 노동 및 환경 관련 이슈를 잘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측면이 크게 기여함

베트남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입 금액 추이 (단위: US\$)



자료 : COMTRADE : TRADINGECONOMICS.COM(검색일 : 2023.3.20.)

➤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의 구매업체들은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대안을 확대해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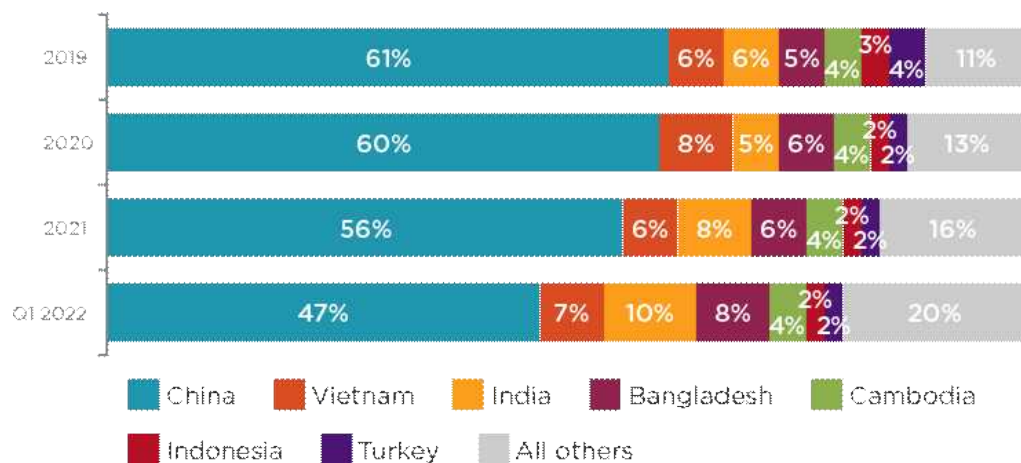
- 물론 동남아 국가 및 다른 대안 국가들은 노동 문제 관련 우려, 항만 및 인프라 부족 등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의 점진적인 해소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동남아 및 남아시아로의 이동 및 다변화는 중국 항만 및 산업거점의 봉쇄 등에 의해 가속화되었으며, 특히 미국 및 EU 시장을 모두 포함할 경우 인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로의 이동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22년 초 COVID-19 재유행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성장 모멘텀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남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하고 있음

- 2019년과 2022년 Q1을 비교하면, 중국은 61%에서 47%로 급감했으며, 인도는 6%에서 10%, 방글라데시는 5%에서 8%로 크게 증가했고,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는 비슷한 수준의 추이를 보임

미국 및 EU 시장의 대표적인 조달지역 변화 추이



자료: Q2 2022 BAROMETER: Global Sourcing in 2022: Uncertainty the New Norm (검색일 : 2023.3.21.)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대안

➤ 높은 중국 의존도 관련 리스크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리쇼어링(reshoring)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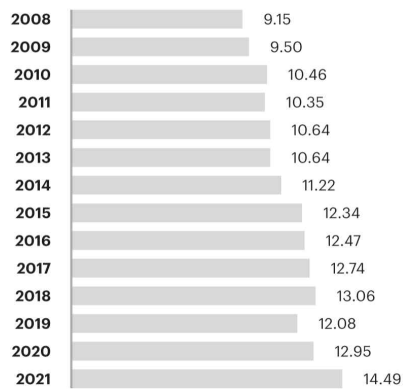
-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을 통해 운송 시간 및 리드타임 단축, 연료 절감 및 환경오염 감소, 'Made in USA'라는 국가 브랜드 파워 활용, 수입 관세 부담 회피, 총 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의 절감 등이 가능함
- 따라서 State of North American Manufacturing 2021 Annual Report의 2021년 3월 조사에 의하면, 리쇼어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2020년 5월의 54%에서 83%로 급증함
- Reshoring Initiative (검색일 : 2023.3.20.)의 조사에 의하면, 고객 및 시장에 대한 근접성, 정부의 리쇼어링 유도 인센티브, 공급망 최적화, 숙련 인력의 확보, 미국산의 브랜드 파워 활용, 이머징 국가 대비 우수한 인프라, 국내 경제 활성화, 리드타임 축소,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이 조사대상 기업들이 리쇼어링 및 국내 공급망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로 나타남

➤ 그러나 많은 기업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이머징 국가로 아웃소싱을 주고 수입을 해왔던 체계를 바꿔 국내 생산체제로 재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

- 많은 기업들이 핵심 부품 및 제품의 국내 생산에 필요한 인력, 전문성, 자본 설비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집중시키는 것이 강력한 회복탄력성(resilience) 확보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생산량 중 수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쇼어링 인덱스도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북미 국가뿐 아니라 중국에 비해서도 비용경쟁력을 가지는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으로의 니어쇼어링도 추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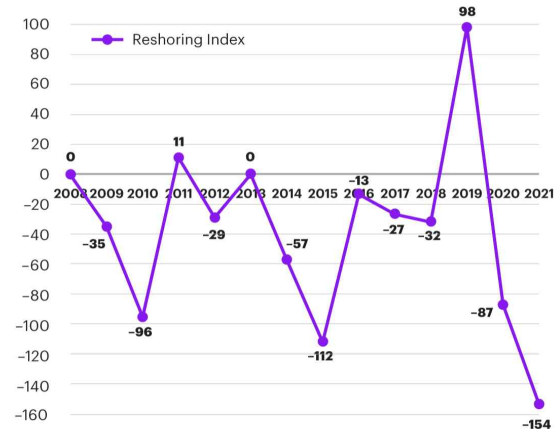
국내 생산량 중 수입 제품 비율 및 리쇼어링 인덱스 추이

US manufacturing import ratio (MIR)

MIR = total manufactured goods import
as % of domestic output

Year-over-year change in the US MIR

(Basis points, 2008-2021)



Sources: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Bureau of Economic Analysis; Kearney analysis

자료 : Kearney "The tides are turning 2021 Reshoring Index" (검색일 : 2023.3.20.)

● 니어쇼어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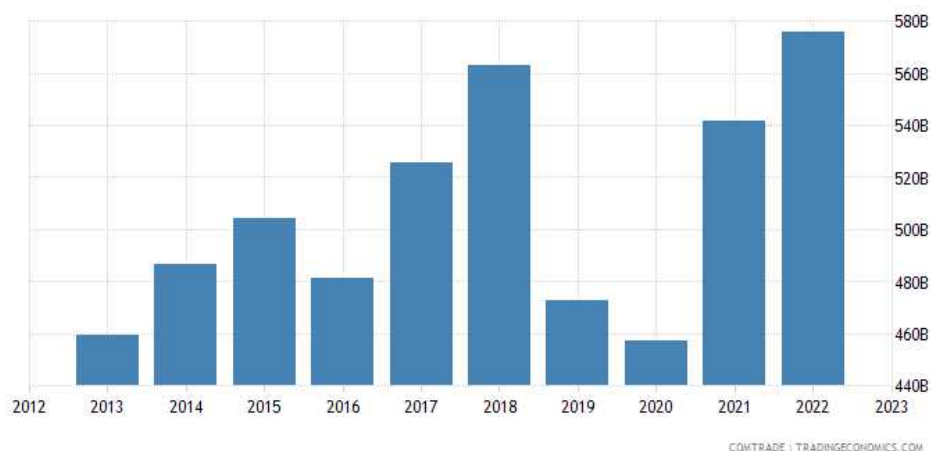
- Nike의 경우, NFL 관련 제품 등 상대적으로 짧은 리드타임을 요구하는 제품은 중미에서 생산해 Miami항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기타 많은 제품들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남미 지역 생산은 멕시코를 비롯해 양호한 수준의 충분한 인력 확보가 가능한 Nicaragua 등 여러 중남미 국가로 확대되고 있음
- 중남미 국가의 인프라 수준은 아직 미흡한 편이긴 하나, 국경 간 철도운송, 남미와 Alaska를 연결하는 Pan American Highway 등 다양한 연결 운송 대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같이, 국가 간 연결망 확충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급망 다변화, 리쇼어링 등을 통해 중국 의존 리스크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가?

➤ 공급망 다변화는 1차 공급업체에 대한 다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전체 공급망 어디에선가 중국 의존 리스크가 개입될 수 있음

- 베트남, 기타 동남아 국가 등으로 공급업체를 다변화한 많은 기업의 경우 새로이 공급망에 추가한 업체들이 핵심 자재와 부품들을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1차-4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패션의류는 말할 것도 없고 봉제, 플라스틱, 기계, 의약품을 포함해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에서의 생산 및 조달이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대폭 축소되었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21-2022년에 급격히 증가함
- 따라서 중국의 수많은 생산거점,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구축된 원부자재 조달망, 기술력, 항만을 포함한 국제 물류 인프라, 방대한 소비시장, 여전히 중국과 거래하고 싶어 하며 또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수많은 해외 기업 등과 같은 막대한 강점들을 상당한 기간 내에는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중장기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접근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입 금액 추이 (단위: US\$)



자료 : COMTRADE : TRADINGECONOMICS.COM (검색일 : 2023.3.23.)

중국 의존도 관련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방안

▶ 조달 및 생산 지역의 분산 및 포트폴리오 확보를 통한 리스크 대응력 확보

- COVID-19, 미-중 간 무역 갈등을 비롯해 중국 관련 리스크가 가중됨에 따라 Meta, Google 등이 최소한 일부의 생산 및 조달을 중국으로부터 이전할 계획을 추진 중이고, Dell이 2024년부터 중국산 컴퓨터 칩 및 부품 사용을 중단하는 등 미국 기업들의 탈 중국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이러한 Tech 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반도체 기술의 중국 수출 제한 등 Biden 정부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감축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큼
- 또한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 등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강점이 약화됨에 따라 멕시코 등으로의 니어쇼어링과 인도, 베트남 등으로의 공급망 다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의 2022년 12월 수출이 최근 3년간 최대폭인 9.9% 급감했음

▶ 해외 조달 및 생산의 차별화 전략

- 세계의 공장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시장으로도 성장한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는 대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므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현지화된 생산시설을 중국에 두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은 베트남 등 대안 국가로 이동하는 차별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음
- 삼성전자의 경우도 이런 전략을 적용했었으나,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시설들도 베트남 등으로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삼성전자에게 중국 시장의 상대적 중요도가 낮아진 측면도 있으나, 베트남 등에 집적된 공급망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측면이 작용함
- 따라서 삼성전자와 같은 단계를 밟는 기업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AstraZeneca는 중국 시장을 위한 흡입기 생산시설을 산동성 청도에 개장했으며, Schneider Electric은 중국 시장을 위한 생산시설과 R&D 허브를 중국 내에서 운영 중임

▶ 공급망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용 절감 방안 도출

-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모두 공급망 재설계 및 재구축을 위한 투자를 초래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인건비, 자재비, 생산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
-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협약 목표 달성,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감소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안 확보가 중요하며, 보다 저렴하고 가용도가 높은 원부자재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이 필요함
- 원부자재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기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품질을 저해하지 않은 가운데 최소의 비용으로 원부자재, 중간재, 완제품,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치분석(value analysis)이 필요함
- 즉 제품의 각 기능이나 부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중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생산방식 대안이 없는지, 보다 저렴한 표준화된 부품으로의 대체가 가능한지, 보다 저렴한 공급업체는 없는지,

동일한 성능의 보다 저렴한 원부자재는 없는지, 패키징 비용 절감이 가능한지, 주문 명세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품질 요구가 너무 과도하지는 않은지, 혹시 직접 만드는 것 보다 구매하는 것이 혹은 그 반대가 더 저렴하지는 않은지, 디자인과 부품 등을 표준화하고 투입 부품 수를 줄일 수는 없는지 등의 가치 테스트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 절감 대안을 도출해야 함

➤ 공급망에 대한 보다 긴밀한 관리 및 통제

- 위와 같은 비용 통제도 중요하나 조달 및 생산의 안정화를 위한 회복탄력성(resilience)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금의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미래의 리스크 및 이로부터 초래되는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함
- 단순화시킨 예를 들면, 향후 10년 내에 수 시간 이상 동안 전력 단절이 발생할 확률이 5%이고, 이로 인한 예상 피해액이 1억 달러(2021년 텍사스 정전 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피해액 적용)라고 가정하면, 리스크의 예상 가치는 5백만 달러에 달하며, 이 정도 수준의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투자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 시장 환경과 수요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자와의 계약을 보다 짧고 유연하게 가져가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동시에 핵심 부품 및 제품의 공급자와는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제휴에 기반을 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제품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공급자 관계관리(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가 중요한 상황이기도 함
- 핵심 부품 및 제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 외에 베트남, 인도 등 다양한 대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조달의 내부화(in-sourcing)를 추진하는 추세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우리 기업들과 관련된 사례로서 아이폰, 애플워치 제품에 기존의 삼성, LG 디스플레이 대신 자체 생산 제품을 사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참고자료 : SUPPLYCHAINDIVE "After years of 'Made in China,' supply chains consider alternatives", (2021.10.14),

IMD "The end of 'made in China'? Five ways to cut supply chain risks", (2023.1.23),

CNBC "China, 'factory of the world,' is losing more of its manufacturing and export dominance, latest data shows", (2022.10.25),

China-USA Business Review "Who Benefits From the Challenges of the Chinese Economy", (2021.5.1.),

SUPPLYCHAINDIVE "Supply chains do the math on reshoring's pros and cons", (2021.4.8.)

2023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2023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OVERSEAS LOGISTICS MARKET
DEVELOPMENT SUPPORT PROJECT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3.27 (월) 09:00 ~
4.24 (월) 18:00까지

제출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탈(withlogis.c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대상사업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대상 사업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비용 지원 ① 인수합병형(현지기업 M&A 및 지분투자) ② 시설투자형(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
수행 대상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관
지원 금액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T 051-797-4770 E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전문연구원
T 051-797-4913 E kdong@kmi.re.kr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사업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 내 물류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수행 대상	물류기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지원 금액	· 물류기업 단독 수행 :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2023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https://youtu.be/OfMtckT0JJI)을 통해 실시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